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

여호와의 말씀의 절대적인 언약

본문**:** 예레미야 1:4–10 (참조 구절: 예레미야 33:2, 창세기 3:15)

1. 서론**:** 모태에 짓기 전에 구별되고 세워진 자

-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부르심 **(**예레미야 **1:5):**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고, 성별하셨으며,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. 이 부르심은 인간의 가치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으며,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
-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약 **(**예레미야 **1:6–8):** 예레미야가 스스로 아이라 말하며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탄식했을 때,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우리는 가며,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.
-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사는 삶**:**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파수꾼이자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.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.

2. 근본적인 뿌리**:** 창세기 **3**장의 비극에서 언약의 해답으로

- 근본적인 분리 **(**원죄**):**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(창세기 1:27–28), 원죄로 인한 하나님 떠남으로 사탄의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.
- 인간의 무능력**:** 인간의 어떤 열심, 도덕적 노력, 종교적 고행으로도 죄와 영적 사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
- 절대적인 해답 **(**창세기 **3:15):**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뱀의 머리를 박살 낼 '여자의 후손'이라는 언약의 해답을 주셨습니다.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,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.

3. 그리스도**:**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언약

- 형식적인 종교 생활 탈피**:** 그리스도를 단지 막연한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종교적인 바리새인에 머물게 하며 영적 취약성을 낳습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자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
- 영적 무기가 되는 말씀**:**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될 때, 성경 말씀은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가 되고, 지속적인 누림이 되며,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보증이 됩니다.
-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**:**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눈앞의 모든 환경이 역전되며, 위기와 문제는 곧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.

4. 하나님의 절대 방법**:**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심

-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**(**예레미야 **33:2):**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. 따라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.
-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**:** 요한복음 7:16과 12:49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스스로 낸 것이 아니요,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이라고 밝히셨습니다.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기에, 성도의 최고 우선순위는 강단 메시지를 받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.
-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오는 참된 애통**:** 말씀이 마음에 부딪쳐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. 성도는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참된 애통함(마태복음 5:4)을 품게 되고, 현장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

5. 결론**: 24**시 기도 속에 세워지는 작품 인생

- **24**시 기도로 들어감**:**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,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"하나님, 오늘 내게도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"가 되어야 합니다.
- 하나님의 최고 작품으로 변화**:** 성도가 300% 언약(전문성 100%, 현장성 100%, 지속성 100%)을 굳게 붙잡을 때, 우리의 삶과 가정, 경제와 업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 작품으로 변화됩니다.
- 살아있는 증인으로 서는 삶**:**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,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현장 속 증인의 걸음을 걸어갑니다.